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 은 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대학원

박 지 선*

국립경찰대학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성적 가치관이나 성역할에 관한 인식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인식 차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은 실제 성폭력 사건을 각색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읽고, 각 사건에 있어 범죄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가해자에 대한 적정 처벌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연관시켜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 및 적대적 성 관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폭력 수용의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또 적대적인 성 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내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성폭력, 피해자 책임, 여성에 대한 태도, 대인 폭력성 수용, 적대적 성 관념

2007년 6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발생에 이은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무 집행자가, 성폭력 피해 여성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모멸감과 죄책감을 안기는 언행을 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다(한겨레뉴스, 2007).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이 성숙되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줄었다고는 하나, 위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까지도 여성, 특히 범죄와 관련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 공공 기관에서 마저도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로 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Bunting과 Reeves(1983)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관을 강하게 가진 이른바 “마초 성격(Macho personality)”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실제로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 훨씬 더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초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피해 여성이 강간 사건에 대해서 신고할 때 그 성폭력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거나, 강간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평소에 평판이 나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인식 가운데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남녀 차별적인 시각과 편견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태도로 사건 발생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피해자 책임 귀인 현상을 들 수 있

다(이석재·최상진, 2001; Check & Malamuth, 1985; Krahe, 1988; Quackenbush, 1989). 피해자 책임 귀인 현상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을 유발했다는 등 피해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범죄 사실을 합리화시키고,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귀인은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일지라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으로(Brownmiller, 1975), 피해자를 격하시키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김정민·손영미·김효창, 2006).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고통이 아예 없거나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가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보다는 경미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등 가해자를 동정하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Burt, 1983).

언론에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 범죄 발생에 대해서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차별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일례로, 이정교·서정남·최수진(2009)의 연구에서는 강간 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 중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보도하는 등 강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비율이 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 중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귀인 시키는 경우가 55.9%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간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중

* 교신저자 : 박지선, 국립경찰대학 교수
Tel : 031-620-2164, E-mail : jsirispark@hotmail.com

적지 않은 수가 성에 대한 남성 위주의 시선을 드러내어, 여성에 대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행동을 허용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이 가지는 성적 가치관이나 성역할에 대한 개념, 폭력에 대한 인식은 성폭력에 대한 시선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때때로 성폭력 범죄 사실의 신고를 막고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걱정 처벌에 실패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계속적인 피해를 양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권희경·장재홍, 2003; 윤병혜·고재홍, 2006).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발생에 대해 이러한 사람들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한 인식 차이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실제 일반인들의 성에 관한 인식 조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 지역 소재의 일반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수강 중인 209명의 대학생(연령 $M = 22.42$, $SD = 2.41$)이었다. 피해자는 남학생 105명과 여학생 90명, 그리고 성별 표시를 하지 않은 대상자 14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절차

연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해당 교양 과목의 조교가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작성된 총 6개의 성폭력 사건 시나리오(부록 1 참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시나리오들은 피해자의 연령대(아동 혹은 성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전혀 모르는 사람, 지인, 직장 동료 등), 성폭력의 정도(강제추행, 강간, 강간 미수 등) 등에 있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피험자들은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대해 차례로 응답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험자들은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읽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를 “전혀 책임이 없다(1)”부터 “전적인 책임이 있다(5)”의 순서로 5점 척도 상에 평정하여, 측정값이 높을수록 사건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나타나도록 표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두 번째 문항에서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1)”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럽다(5)”까지의 순서로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최대한 가벼운 처벌(1)”에서 “최대한 무거운 처벌(5)”의 순서로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덧붙여,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피

험자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 두 개(2번과 6번)에서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 무작위로 대상자들에게 제시해 설문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태도와 연관시켜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 및 적대적 성 관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pence 와 Hahn(1997)이 개발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문항 15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각각 문항에 대해 Likert형의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점)”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측정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단, 총 15 문항 중 7문항은 역채점함). Spence와 Hahn(1997)이 개발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

대인 폭력성 수용 정도는 Burt(198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폭력성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피험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Likert형의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척도 값이 클수록 대인 간의 폭력성을 많이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단, 총 여섯 개의 문항 중 세 개의 문항은 역채점함).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86이다(Burt, 1980).

적대적 성 관념 척도

적대적인 성 관념에 대한 척도는 Burt(198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적대적 성 관념 문항 총 9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피험자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Likert형의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점)”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척도 값이 클수록 적대적 성 관념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수용하거나 동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총 9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Burt, 1980).

결 과

각각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각 시나리오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피험자 총 209명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표 1 참조),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시나리오 4에서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 책임이 유의미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F

표 1. 성폭력 사건 각각에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의 평균(괄호 안: 표준편차) (N=209)

	피해자 책임	피해자 고통	가해자 처벌
시나리오 1	1.34(.63)	4.86(.42)	4.52(.57)
시나리오 2	1.17(.65)	4.72(.56)	4.58(.59)
시나리오 3	1.74(.91)	4.57(.63)	4.31(.70)
시나리오 4	2.84(.95)	4.38(.75)	4.14(.83)
시나리오 5	1.76(.99)	4.69(.63)	4.42(.80)
시나리오 6	1.15(.53)	4.35(.74)	4.40(.73)

=220.25, $df=5$, $p<.01$). 이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유희를 즐긴 피해자를 묘사한 사건 발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피험자들이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경향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두드러짐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평가한 결과(표 1 참조), 시나리오 4와 시나리오 6에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피해자들이 사건의 결과로 느꼈을 고통이 적게 평가되었음이 드러났다($F=31.34$, $df=5$, $p<.01$). 특이할만한 점은 시나리오 4에서는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높게 평가되는 동시에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이 낮게 평가되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인 반면, 시나리오 6에서는 피해자의 책임이 6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M=1.15$, $SD=.53$),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이다($M=4.35$, $SD=.74$). 이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을 묘사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강간 미수 사건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6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표 1 참조), 시나리오 4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의

가해자보다 피험자들이 생각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F=17.18$, $df=5$, $p<.01$). 이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유희를 즐긴 피해자를 묘사한 사건 발생 시나리오에 있어, 피험자들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더 많이 묻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피해자 성별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 차이

이번에는 각각 사건에 대한 상황은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로 나누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피험자들이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 1, 2, 3 세 가지 가운데 무작위로 시나리오 2를 선정하고, 강간 혹은 강간 미수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 4, 5, 6 세 가지 가운데 무작위로 시나리오 6을 선정하여,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로 설문지를 양분하여 피험자들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무작위로 배포한 결과,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의 시나리

오가 담긴 설문지가 107부, 여성인 경우 102부가 배포되었다.

우선 시나리오 2에서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남녀 각각 $M=1.20$, $SD=.76$; $M=1.14$, $SD=.51$)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남녀 각각 $M=4.56$, $SD=.65$; $M=4.61$, $SD=.53$)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를 평가한 결과, 피해자가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피해자가 남성일 때가 평균 4.63($SD=.62$), 피해자가 여성일 때 평균 4.81($SD=.46$)로, 피험자들은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가 남성일 경우보다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F=6.08$, $df=1$, $p<.05$).

시나리오 6에서는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과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지각과 성역할 관련 인식과의 관계

이번에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가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태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여섯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피해자의 평가 정도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성역할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우선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r=.174$)와 대인 폭력성 수용 정도($r=.238$) 및 적대적 성 관념($r=.140$)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폭력의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또 적대적인 성 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피험자들의 평가는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인식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드러냈다(표 2 참조). 즉,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r=-.250$), 대인 관계에서 폭력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r=-.299$), 또 적대적인 성 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r=-.415$)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 처벌의 정도 역시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인식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

표 2.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태도와 상관척도들 간의 상관

	여성에 대한 태도	대인 폭력성 수용	적대적 성 관념
피해자의 책임	.174*	.238**	.140*
피해자의 고통	-.250**	-.299**	-.415**
가해자에 대한 처벌	-.225**	-.250**	-.370**

* $p<.05$, ** $p<.01$

상관 관계를 드러냈다(표 2 참조). 즉,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r = .225$), 대인 관계에서 폭력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r = .250$), 또 적대적인 성 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r = .370$)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성역할에 대한 개념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각색한 총 6개의 성폭력 사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피험자들에게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의 정도, 가해자에 대한 적정 처벌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게 한 후,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태도가 성폭력 사건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주는지 연관시켜 알아보기 위해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와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 및 적대적 성 관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긴 피해자를 묘사한 사건 발생 시나리오에 대해서, 피험자들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피해자에게로 더 큰 사건 발생의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을 묘사한 다른 사건에 비해 강간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범죄 발생의 결과로 느꼈을 고통은 적게 평가되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에 있어 가

장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이 드러났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가 피험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성역할 관련 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대인 관계에서 폭력의 허용 정도가 높을수록, 또 적대적인 성 관념을 많이 수용할수록 성폭력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개념에서 비롯된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성폭력 사건의 지각에 있어 가부장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남녀 차별적인 시각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로 돌리는 피해자 책임 귀인 현상과 관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의 예처럼, 여성은 남자처럼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든지, 혹은 여자는 남자가 성적으로 거칠게 다루거나 강압적이기를 바란다든지 등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일수록 강간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묻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범죄 발생의 책임이 가해자에게서 피해자에게로 돌려지게 되면,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피해자가 고통받기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동정하게 되며,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

성을 상당 부분 내포한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피해자의 사건 신고를 막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저해하며, 장기적으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성폭력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 길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는 노력들, 즉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화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CCTV의 설치나 방범순찰의 강화 등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 성역할과 관련된 시대착오적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전환 또한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첫째, 피험자들이 서울 소재 특정 대학의 평균 연령 22세의 대학생들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미래에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통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피험자들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여섯 개의 시나리오 중 두 개(2번과 6번)에서만 피해자의 성별을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로 나누어 무작위로 대상자들에게 제시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에 대한 평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 것(시나리오 2)과 같이 피해자의 성별 또한 사람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에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다

루어 모든 시나리오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지는 피해자의 연령대(아동 혹은 성인)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간접 모르는 사람, 지인, 직장 동료 등), 성폭력의 정도(강제추행, 강간, 강간 미수 등) 등에 있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폭넓게 반영하는 총 6개의 시나리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의 책임이 6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느꼈 고통 또한 가장 낮게 평가된 시나리오(강간 미수 사건)에서 보여주듯, 미래에는 사건 자체의 발생 특성을 시나리오별로 보다 체계적으로 다양화하여 이러한 효과가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미치는 차별화된 영향에 대해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권희경·장재홍 (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1), 35-47.
- 김정인·손영미·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131-149.
- 윤병혜·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총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

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이경교·서영남·최수진 (2009). 한국 신문에 나타난 강간보도의 통시적 분석-강간통념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5, 425-549.

한겨레뉴스 (2007). 상담경찰관 “나라면 성폭력 부인과 안살아”: 사회일반. 2007년 6월 5일자.

Brownmiller, S. (1975),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Bunting, A. B. & Reeves, J. B. (1983). Perceived male sex orientation and beliefs about rape. *Deviant Behavior*, 4, 281-295.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Burt, M. R. (1983). Justifying personal violence: A comparison of rapists and the general public.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8, 131-150.

Check, J. V. P. & Malamuth, N. M. (1985). An empirical assessment of some feminist hypotheses about rape.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 414-423.

Krahe, B. (1988). Victim and observer characteristics as determinants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s to victims of rap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 50-58.

Quackenbush, R. L. (1989). A comparison of androgynous, masculine sex-typed, and undifferentiated males on dimensions of attitudes toward rap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3, 318-342.

Spence, J. T. & Hahn, E. D. (1997). The Attitude Toward Women Scale and attitude change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4.

1 차원고접수 : 2011. 4. 7.
 심사통과접수 : 2011. 7. 14.
 최종원고접수 : 2011. 7. 28.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Th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2011, Vol. 2 No. 2, 171-183

Attitudes towards rape victims and perpetrators in relation to people's sexual beliefs and stereotypes

Eunji Kim

Kyunggi University

Jisun Park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if attitudes towards rape victim and perpetrator would be affected by people's sexual beliefs and stereotypes. A total of 209 college students read descriptions of six different sexual assault incidents and evaluated the degree to which the victim is responsible for the rape incident, the victim is suffering from the offense, and the perpetrator should be punished for the offense. In order to test if people's attitudes towards rape victim and perpetrator are related to their sexual beliefs and stereotypes, all subjects then responded to the scales of Attitude Toward Women,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Adversarial Sexual Beliefs. As a result,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people with negative attitudes towards women and high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and adversarial sexual beliefs were more likely to believe that the victim is responsible for the rape incident, the victim is not likely to suffer from the offense, and the offender deserves less severe punishment.

Key words : sexual violence, victim responsibility, attitude toward women, acceptance of interpersonal violence, adversarial sexual beliefs

부 록 1

시나리오 1

40대 중반의 남성 이OO는 2005년 0월 0일 교양시 OO공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OO(여, 14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길을 안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대나무 숲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위 대나무 숲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놓인 다음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시나리오 2

50대 후반의 남성 윤OO는 2007년 0월 0일 13시 경 서울 서대문구 OO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나OO(남/여, 1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어디사니, 이쁘게 생겼구나”고 말하며 피해자를 두 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시나리오 3

익산시 OO건물에서 독서실과 OO학원을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남성 최OO는 2007년 0월 0일 19시 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독서실에 다니는 피해자 이OO(여, 14세)를 불러 피해자에게 그전 2일 동안 독서실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은 다음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고 싶은 줄 아느냐, 나는 OO가 오지 않으면 전화라도 해 보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일주일 후 19시 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음식을 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그 다음 전기 불을 끈 후 피해자를 일으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시나리오 4

30대 초반의 남성 박OO는 2004년 0월 0일 새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한OO(여, 16세)와 함께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운전하려면 차고 가야 된다고 하며 부산 소재 OO모텔의 객실을 두 개 잡은 다음, 같은 날 10시경 위 모텔 000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시나리오 5

20대 후반의 남성 김OO는 서울 영등포구 OO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평소 같은 사원인 피해자 강OO(여, 21세)를 좋아하고 있던 중 2001년 0월 0일 22시 경 서울 강남구 OO나이트클럽에서 억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려는 눈치를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는 모텔의 2층 객실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시나리오 6

40대 중반의 남성 김OO는 2005년 0월 0일 새벽 2 시경 OO군 OO면 점질방에서 그 곳 점원 피해자 송OO(남/여, 29세)를 강간할 것을 목적으로 소주병을 깨어 들어 피해자에게 위협하여 숙직실로 들어가게 한 후 응하지 않으면 깨진 병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곳 다른 점원 000(35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부 록 2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

1. 남자보다 여자가 욕하고 외설스런 말을 하는 것이 더 불쾌하다.
2. 요즘은 여성도 집밖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남자들도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나누어 해야 한다.
3. 결혼식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신서하는 것은 여성에게 모욕적인 일이다.
4. 여성은 남성처럼 자유롭게 청혼할 수 있어야 한다.
5. 여성은 자신들의 권리 찾기 보다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한다.
6. 여자가 자기 데이트 상대만큼 번다면, 데이트할 때 돈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
7. 사업이나 직업 면에서 여자는 남자와 같은 지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
8.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대우받기를 기대하거나 남자처럼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9. 딸보다는 아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지지를 더 받아야 한다.
10. 여자가 운전을 하거나 남자가 바느질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11. 아이를 키울 때 일반적으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더 큰 권위를 가져야 한다.
12. 집단의 지적 지휘권은 남자의 손에 더 달려있어야 한다.
13.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자유는 남성들이 말하는 여성스러움을 따르는 것 보다 훨씬 가치 있다.
14. 고용이나 진급할 때,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직업들이 있다.
15. 여러 직업군에서의 양성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과 같은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대인 폭력성 수용 척도

1. 현대인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다룰 때 많은 여자는 성적 자극을 느낀다.
3. 많은 경우 여자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게 보일까봐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척하지만, 실은 남자가 강압적이기를 바란다.
4.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면, 그 아내는 그 집을 떠나야 한다.
5. 때때로 남자가 냉담한 여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6.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적대적 성 관념 척도

1. 여자들은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남자만을 존중한다.
2. 많은 여자들은 성적으로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남성들이 이를 모두 만족시키기는 역부족이다.
3. 처음부터 여자에게 지배적으로 굴지 않으면 나중에는 여자들이 남자를 깔아뭉갬다.
4. 여자들은 남자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착하게 굴다가 그 이후에 본 모습을 보인다.
5. 많은 남자들이 대단한 척 하지만 사실 대부분 성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6. 대부분의 이성 관계에서 여자들은 남자를 이용한다.
7.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성관계 하나뿐이다.
8.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는 교활하게 머리를 굴린다.
9.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에게 욕박지를 때 즐거움을 얻는 것 같다.